

피츠버그 방출 강정호, 미국에서 재기 도모할 듯

강정호(32)가 피츠버그와 공식적으로 헤어졌다.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4일 강정호를 공식 방출했다. 피츠버그는 전날 강정호를 양도선수지명(DFA)하며 결별 수순을 밟았고, 5일 방출로 이어졌다. 강정호의 계약을 떠나는 조건으로 클레임을 한 팀은 없었다.

이제 강정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KBO 리그로 복귀하는 방안, 미국에서 계속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방안, 그리고 KBO리그나 미국이 아닌 제3리그로 진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가장 파급력이 큰 선택지는 KBO리그 복귀다. 강정호는 포스팅시스템(비공개경쟁입찰)을 통해 MLB에 진출했다.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원 소속팀인 키움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강정호는 현시점에서 KBO리그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2016년 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른바 '삼진 아웃'이 드러났다. KBO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좋지 않은 한국 여론도 부담이다.

일본 등 다른 리그에 진출하면 징계와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다.

남는 것은 미국에서의 도전이다. 클레임이 없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뒤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강정호는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각오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올해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169, 출루율은 0.222에 그쳤다. 185타석에서 삼진이 무려 60개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10개의 홈런을 쳐 정확성만 향상되면 언제든지 팀에 장타를 제공할 수 있는 타자임을 입증했다. 이 가능성에 투자할 팀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고진영, 올해 메이저 쉐인 RAMA 수상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승을 기록한 고진영(24)이 토크스 에니카 메이저 어워드(RAMA)의 주인공이 됐다.

5일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고진영은 전날 영국 잉글랜드 밀턴킨스의 워번 골프클럽(파72, 6,5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브리티시 여자오픈(총상금 450만 달러)까지 5개 메이저 대회가 모두 끝난 결과, 올해의 '메이저 쉐인'에 올랐다.

지난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과 지난달 네 번째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한 고진영은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3위로 마무리하면서, 138점으로 RAMA를 받았다.

RAMA는 한 해 5개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우승자에게만 수상 자격이 주어지며, 우승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쌓은 선수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여자골프 전설 에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이름을 본떠 만든 상이다.

2014년 신설돼 미셸 위(미국)가 초대 수상자에 올랐으며, 박인비(2015년), 리디아 고(2016년), 유소연(2017년), 에리아 쭈타누간(2018년)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만 이 상을 받았다.

올해 RAMA의 주인공 고진영은 올 시즌 5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공동 16위-공동 14위-우승-3위의 놀라운 성적을 작성했다. 고진영은 LPGA를 통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며 "이 트로피는 내 방에 보관할 것이다. 소렌스탐은 전설이다. 어렸을 때 소렌스탐과 박세리 선배님을 보면서 자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NBA, 여성 코치 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전체 30개 구단의 3분의 1에 가까운 9개 팀에서 여성 코치가 벤치에 앉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이날 "노터데임대학교 여자 농구팀의 닐 이베이 코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9-2020시즌에는 총 9명의 여성 코치가 활약하게 돼 NBA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여성 코치가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의 남자 선수들을 가르친다.

지난 시즌까지 제니 부세크(델러스), 베키 해먼(샌안토니오), 내탈리 나카세(LA 클리퍼스), 캐런 스택 어말러프(시카고), 크리스티 톨리버(워싱턴)가 여성 코치를 맡았고 올해 린지 고틀리프(클리블랜드), 카라 로슨(보스턴), 린지 하딩(새크라멘토)에 이어 이베이까지 가세했다.

NBA의 여성 코치 역사는 2001년 리사 보이어가 클리블랜드 코치를 맡으며 시작됐고, 해먼이 2014년 여성 코치 최초로 샌안토니오와 '폴 타임 계약'을 맺었다.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올해 5월 인터뷰에서 "현재 3명인 여성 심판을 리그 전체의 절반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코치도 마찬가지"라고 여성의 리그 참여를 독려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NBA에 여성 참여가 늘어났다. 이제 여성의 존재가 평범하게 느껴질 차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구단 사무국 주요 직책을 맡은 여성이 18명, 구단 소유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휘 계통에 있는 여성은 6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NBA 여자 감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2018년 5월 해먼이 밀워키 벅스 감독 면접 대상이 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eah Ivy Chang

Realtor

The REALTOR You Can TRUST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